

# 朴-李 검증공방 전면전 가나

(근혜) (명박)

### 정인봉 “3월 안에 당 소명 거친 후 공개” 이명박측 “박근혜 X파일 공개할 수도”

한나라당 양대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간의 검증공방이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박 전 대표 측 법률특보인 정인봉 변호사는 15일 오후 열 예정이었던 ‘이명박 도덕성 공개 기자회견’을 취소했지만 A4용지 1천여 쪽 분량의 검증 관련 자료를 당 경선준비기구인 ‘2007 국민승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인 ‘2007 국민승리위원회’(위원장 김수환)는 정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관련, 과거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자료로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같은 경선위의 입장 발표는 자료 제출 후 불과 몇시간만의 일로 바뀌기식 검증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정 변호사와 박 전 대표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날 정 변호사는 자료 제출 후 기자회견과 만나 “(기자회견을) 반복한 게 아니라 오늘은 윤리위에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해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소명의 기회를 준다면 3월말 전에 소명 절차를 거쳐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

이라고 믿지만 검증이 너무 늦어지거나 검증 밀도가 낮으면, 또 특정후보 배주기식으로 흐르면 즉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률특보직 사퇴 문제와 관련, “이런 일이 캠프에 ‘데미지’(손해)를 줄 것 같아 혼자 (사퇴를) 결정했다”면서 “곧 직원을 보내 캠프에 사퇴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은 “박근혜 X파일을 공개할 수도 있다”며 맞

불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정 변호사 개인은 물론 박 전 대표의 공동책임론을 거론하며 ‘일전’을 불사의 각오를 밝혔다.

이 전 시장의 핵심 측근 의원은 이날 “참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다”며 “비열한 정치 공작을 계속하는 박 전 대표와 정치를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박근혜 X파일’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명을 요구한 이 의원은 “우리도 박 전 대표에 대한 검증 자료가 있다”며 “유신시대 박 전 대표가 (청와대에서) 퍼스트레이디로서 권력을 이용해 행한 모든 부도덕한 행위, 정과 대에서 나온 이후 18년간 은둔 생활

전반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도 “정 변호사의 행동은 설 전에 이 전 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퍼뜨려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는 공작적 차원의 행동”이라며 “절대 정 변호사의 독자행동이 아니다”며 정치적 배후설을 거듭 제기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 측 최경환 의원은 “어찌 보면 자료 공개는 당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저쪽에서 자꾸 박 전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데 무슨 책임이나, 저쪽의 그런 행동이 바로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도덕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정인봉 변호사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에 관련자료를 제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수 화재참사는 총체적 인재”

국회 법사위, 경비 허술·안이한 대응 등 질타

김범무 “철저 수사 하겠다”

국회 법사위의 15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화재참사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이번 사고가 허술한 경비체계와 직원의 안이한 대응, 시설미비 등이 총체적으로 빚어진 인재(人災)라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장인 이주영 의원은 “경비업체 직원은 전부 나이가 50살을 넘고 임금은 80만 원대에 불과하다”며 “두 시간마다 순찰한다고 하지만 순찰부 정리도 안했고, 소방훈련도 실시한 것처럼 돼 있지만 통제관 서명이 하도 없는 등 전부 허위기록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중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자 외국인들이 달려달라고 고함쳤지만 방화 후 9분간 CCTV에 당직직원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방화시점에 아무도 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당시 수용 외국인들의 평균구급일수도 문제삼았다. 노 의원은 법무부 담당자가 “평균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김성호 법무부장관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급일수가 10일”이라고 답하자 “평균 39일인데 왜 은폐하느냐”고 추궁하면서 “심지어 2005년 12월, 2006년 2월부터 구급된 이들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해당 법무부 담당자는 “그 수치는 (예전부터) 있었던 사람들까지 평균 내서 보니까 그렇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렸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연발하면서 “앞으로 철저한 수사화재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근무자들의 과오나 시설의 미비점은 없었

는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백도 검사의 ‘피의자 거짓진술 강요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백검사의 행위는 직권남용죄나 위증교사죄에 해당된다”며 “국회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공판중심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합뉴스

## 고건, 중도포기 한달... 자택서 칩거

외출땀 모자·마스크로 얼굴 가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던 고 건 전 국무총리가 대선불출마를 선언하고 잠적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고 전 총리는 지난달 16일 대선불출마 기자회견이 지지자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운전기사만 동행한 채 지방으로 내려가 주말을 보냈다.

그는 이후에도 20여일간 자택과 지방에서 번갈아 머무르면서 외부와의 거리를 둔 채 사실상 ‘두문불출’했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자택에 머무를 때도 외부로 나오는 것을 삼갔고, 불가피한 경우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외출하는 등 주변의 시선을 상당히 의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차라리 잠시 외국에 다녀오는 것은 어떠냐”는 측근들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외국에 갈 이유가 없다”고 거절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이 기간 가

족을 제외한 외부 인사와의 접촉도 최대한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여권의 일부 유력 정치인의 경우엔 ‘후광효과’를 얻기 위해 고 전 총리와 접촉을 시도했다가 중도포기했다는 얘기도 있다.

그는 최근 정치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최근 여권의 분화에 대해서 “내가 그만뒀기 때문에 중도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불출마선언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도 보였다는 게 한 측근의 전언이다.

고 전 총리는 설 연휴가 끝난 뒤에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되찾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측근은 “설 연휴 이후엔 연지동 개인사무실에 출근도 하고, 지인들도 만나는 등 정치활동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며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정치적인 시각으로 해석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YS-이명박 비밀 회동

검증 논란속 배경 관심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4일 김영삼 전 대통령과 비밀리에 만난 것으로 확인돼 회동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회동은 최근 이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진영간 ‘검증’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향후 당내 경선준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전 시장과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라호텔에서 열린 탤런트 윤태영, 임유진씨의 결혼식장에서 만나 잠시 인사를 나눈 뒤 곧 다른 사람들

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겨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같이 했다.

결혼식장에서 이뤄진 우연한 만남처럼 보였으나 이날 회동은 김 전 대통령의 사전 요청에 의한 것으로, 두 사람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최근의 정국현안에 대해 폭넓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시장은 최근 김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했으며, 김 전 대통령은 당내 검증 논란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노대통령 시스템에 안맞는 인물”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는 14일 발간된 월간조선 3월호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조직이나 시스템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인 이 전 총재는 “꼬마 민주당 시절 노 대통령은 어때했느냐는 질문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회의에서 동의받지 못하면 획 떠나고, 이해관계가 없는 회의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불안정한 성격을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생똥한 말을 많이 했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그런 점을 좋은 곳에 활용하면 훌륭한 대통령이 되리라 기대했다”며 “되고 나서는 내가 알았던 노무현 보다 더도가 지나치다. 옆에서 바른 소리를 안해 주는 건지...”라고 덧붙였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에 대해서 “92년 대선 때 DJ가 돈을 많이 썼다. 돈 문제에선 귀신”이라며 “은행 부정 대출 같은 의혹이 있으면 전국에 있는 호남 사람들이 다 정보를 갖다줬다. 정보가 얼마나 많았는지 DJ한테 걸리면 죽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 large advertisement for '국채적립' (National Debt Savings) featuring a group of people and a large QR code. The text includes promotional messages about the benefits of the program and a call to action to visit the website.